민주, 검찰개혁입법 속도…국힘, 문대통령 압박

여, 전관예우 특권 때문에 저항
권력 전반 개혁 청사진 의지
야, 대통령 입법 거부권행사 요구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개혁입법'에 속도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찰개혁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읽힌다.

전날 정책위원회 산하에 형사사법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도 입법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단순히 검수완박을 넘어 장기적으로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문 대통령 발언에)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당장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속전속결식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행 반대파'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합시다. 하지만, 하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합시다"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다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검찰개혁입법 의견 밝히는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개혁입법'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 공천 배제…민주 도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발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석형 전 함평군수 컷오프…선거구 판세 요동

강인규 나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추가로 배제됐다.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배제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은 김산 무안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강 시장 등 3명으로 늘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되면서 해당 선거구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심사 결과, 전남지역 21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남군수 후보는 명현관 현 군수를 단수로 추천했다. 담양군은 계속 심사 중이다.

2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한 지역은 ▲목포(강성휘·김종식) ▲곡성(이상철·이재호) ▲고흥(공영민·박진권) ▲보성(김철우·임영수) ▲화순(구복규·문행주) ▲장흥(곽태수·김성) ▲진도(박인환·이재각) ▲영광(김준성·이동권) ▲함평(김경자·이상익) 등 9곳이다.

3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는 곳은 ▲나주(윤병태·이민준·최용선) ▲광양(김재무·문양오·이용재) ▲장성(김한종·박노원·유성수) ▲영암(배용태·우승희·전동평) ▲무안(강병국·김대현·이정운) ▲신안(김행원·박석배·박우량) 등 6곳이다.

공천 과정에서 배제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강인규 나주시장은 컷오프됐다. 추미애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천경배 전 신안군수 후보도 단수 추천을 받고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나섰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경선 경쟁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4명이 경선을 치러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2인이 결선투표로 후보를 결정 짓는 4인 경선 실시 지역은 ▲여수(강화수·권오봉·전창곤·정기명) ▲순천(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완도(김신·신영균·신우철·지영배) ▲구례(김순호·박양배·신동수·왕해전) ▲강진(강진원·서채원·이승옥) 등이다. 강진은 후보자들이 3명이지만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후보 간 경쟁이 이뤄지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 광주·전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전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한 데 이어 대선 이후 두 번째 지역 행보다.

19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새만금과 전북 일대 돌아본 후 광주로 이동한다.

이튿날까지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광양에서 출발해 오후 경남과 부산으로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2일 부산에서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상경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총 다섯 차례 호남을 찾아 표심을 호소하는 등 지역 민심을 듣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안군 부적절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감사, '쪼개기' 수의계약 여전·승진 절차 불공정

신안군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전남도가 2년 전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쪼개기' 수의계약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승진 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처리해 먼저 승진·임용할 직원을 늦게 임용하는 등 부당한 인사 업무 처리 행태가 재차 드러나면서 '소 귀에 경읽기' 식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안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0을 적발해 2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18억4100만원을 추징·감액·회수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근 3년 간 신안군 본청·직속 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장애 예술인 거점 공간 5월 문 연다

광주에 장애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공간이 문을 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 다음 달 광주 동구 대의동에서 개장한다. 시는 건물 3층(240㎡)을 임대해 연습실, 레지던스 작업실, 교류 공간 등을 마련한다. 건물 1층에 있는 전시 공간 두 곳(660㎡), 6층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 교육생 오케스트라단 운영, 문학집 발간도 지원한다.

특히 11월 중 장애 예술인 문화주간 '예술 날개 페스티벌' 개최, 장애 예술단체의 시설 대관 지원 등으로 '문턱 없는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